

노벨리스,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환경경제 융합 교육 실시

국제 비영리 교육기관 JA Korea와 함께 울산-영주지역 초등학생 1,740명 교육 진행

2015년 11월 9일 (서울) – 세계적인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인 노벨리스는 세계적인 교육기관 JA Korea와 함께 2015년 하반기 울산, 영주지역 초등학생 1,740명을 대상으로 환경경제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와 I Think I Can’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지속 가능한 미래와 I Think I Can’은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총 3교시에 걸쳐 알루미늄 캔 재활용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혁신 기업가가 되어 보는 토론식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9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울산, 영주 지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 선생님들이 울산과 영주 지역의 14개교, 58학급, 1,740명의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을 방문하여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환경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학교 교사 및 어린이들의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울산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는 “이번 수업을 통해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그 동안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꼬박꼬박 실천하겠다”라며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것을 다짐했다.

노벨리스 아시아 사시 모드갈 사장은 “I Think I Can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원 재활용이 갖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JA Korea의 김태준 회장은 “이번 환경경제교육은 기업 인근 사회의 미래 환경과 경제에 보탬이 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기업과 NGO가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교육이 더욱 확산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벨리스(Novelis)는 알루미늄 압연 제품 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로 11개국에 11,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Novelis Inc.)는 압연 알루미늄 제품 및 알루미늄 재활용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으로, 현재 11개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며, 11,5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5 회계연도 매출액은 11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대륙의 운송, 패키징, 건설, 산업 및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 최고급 알루미늄 시트 및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다. 노벨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의 자회사이다. 노벨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www.novelis.com) 및 페이스북 (www.facebook.com/NovelisInc)과 트위터 (www.twitter.com/Novel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A Korea 소개

JA(Junior Achievement)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세계적인 비영리단체로, 1919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전세계 120여개국에서 매년 1천만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JA Korea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 인식의 틀을 만들어 주며, 경제, 금융, 창업 및 진로 교육을 통해 미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2002년 10월 설립되었다. JA Korea는 기업, 재단,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되며, 전문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직장인, 은퇴 봉사자들이 학교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교육 전문 비영리단체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매년 14만명을 교육하고 있다.